

마음을 비운 아내 (하)

김형남 (천안시 신부동)

아내가 첫딸을 낳았을 때만 해도 부모님은 "첫딸은 재산미천"이라며 기뻐하셨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바라셨다. 내가 외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내에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으셨다. 물론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시부모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워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딸을 낳고 나서였다. 아내는 둘째 딸을 낳을 때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임신 기간 중에도 몹시 힘들었던 아내는 그런 만큼 둘째 아기가 딸이라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 아쉬운 마음에는 시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내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첫딸 때보다 아쉬워하는 마음은 아무래도 더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둘째 딸 출산 이후 아내는 시부모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몸이 자주 아프면서 명절 때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시댁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지 생겼다. 한 두 번이라면 몰라도 그 횟수가 늘면서 어머니께서 이따금씩 불편한 마음을 비치셨다. 아무 말씀이 없던 아버지께서도 "건강 잃으면서 그렇게 일하면 무엇하느냐"며 꾸지람을 하셨다.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내 건강에 대해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셨다. 욕심이 많고 무엇이든 완벽해야 하는 아내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컸다. 아버지의 꾸지람도 그런 차원에서였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서라기보다는 아들 손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겼다. 건강해야 아이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부모님이 하고 있다고 오해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아들을 원한 건 아내였는지도 모른다. 아내는 친오빠의 두 아들을 부러워했다. 아내는 오빠에게 "우리 하나씩 바꾸자"는 우스개 소리를 자주 했다. 아내의 그 말이 농담만은 아니라는 것을 난 알 수 있었고, 아내는 "셋째를 갖자"며 아들을 낳고 싶다는 속내를 비쳤다. 내 부모님 보다는 정작 아내가 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심했던 것이다.

광덕사에 다녀 온 뒤 아내는 이런 얘기를 꺼내며 내게 처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는데서 오는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차츰차츰 건강을 회복한 아내는 전과는 달리 시간을 내서 절에 가려고 노력했다.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절에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셔도 인근의 절을 찾아가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곤 했다. 이따금씩 장모님과 함께 절에 가기도 하고, 경전도 읽기 시작했다.

학교생활도 달라졌다. 무조건 욕심을 내기 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만 실행에 옮겼고, 남보다 앞서서하려고도, 더 많은

욕심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 비우기 시작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오해라는 것 알게 돼

용서·화해의 소중함 일깨워준 아내에 감사

다스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아프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몸이 아프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이제는 주변도 돌아보면서 여유있게 살고 싶어. 세상 모든 거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러면서 아내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모아놓은 스님들의 법문을 보여주었다. 스님 법문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병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

것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집착도 떨쳤다. 무조건 기대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눈높이를 맞췄다.

그렇게 편안한 날들을 보낸 지 2년이 지난 올해 7월 갑자기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 아버지는 암이라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다.

토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온 아내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다. 살이 뼈에 붙어 있을 정도로 아픈 시아버지를 두고 병실을 나서지 못하는 아내에게 나는 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내의 간호가 극진해서인지 아버지는 다소간 회복기미



그림 · 문병성

를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7월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아버지를 아산의 한 사찰 납골당에 모시기로 결정했다. 이 때까지도 아내는 머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머니와 누나를 위로하면서 장례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49재를 치른 뒤 아내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다. 나 그게 너무도 마음이 아파. 건강 잘 챙기라는 아버지 꾸지람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그 때부터 몇 년간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못마땅해 했어. 그런데 2년 전 몸이 아팠을 때 엄마 생각을 하면서 느꼈어, 당시 부모님도 우리 엄마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 그동안 말은 안했지만 나 당신 부모님 정말 미웠어.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님께 용서를 빌지 못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용서를 빌지 못한 것이 왜 이리 마음에 남는지..."

아내는 2년 전 몸이 아프고 난 뒤 마음속

으로는 부모님께 잘못을 빌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런 아내가 고맙다. 사소한 오해로 몇 년간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세상을 산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임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세상과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이, 세상과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아내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부모님 유골을 절에 모신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불교 신도인 이유도 있고, 나 역시 불교신도 흉내나 내는 정도에 불과한 처

지지만 그래도 절에 모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불교신도가 돼 보려고 한다. 2년 전 불교에 진심으로 귀의하면 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아내를 스승이자 목표 삼을 생각이다. 그토록 버리지 못했던 욕심을 어느 한 순간에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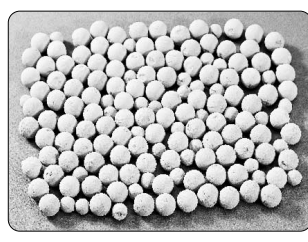
49재가 끝났으니, 이제 가족들과 사찰 여행을 다녀 볼 작정이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싶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자곡자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수행기록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정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속면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전신질환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 힘을 고루 전달, 기억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연주, 손목항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기격려를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목련사
- 주 지 : 보태(성낙오)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환서 2리 325-1

상기 인(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7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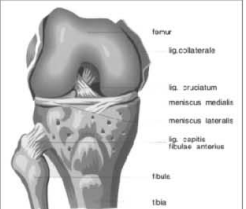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 신경통·오십견·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광환의원의 윤광환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신경통·오십견·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광환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

간지방간염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한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끓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 넣고 용거 9가마니를 담은 뒤 용거에 물을 붓고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서 끓어오르면 황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용거가 다 터들어 기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태아영가천도

마음이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태아영가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향: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능엄신주 해석 독송기도

대학입시합격기도

입시장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녀교육문제

자녀탈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사법 행정고시 각종 취업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회 회향

매주 화요일 · 보시와 불공방편

-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전문 ③보현행원문 ④관세음보살본품
-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 ⑪불탄법에(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타

● 지방분 환경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는 사회 만들기

만발당산 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부산 대구 마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18-789-5008

차별없는